

카타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10.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0

I. 일반개황

면 적	11천km ²	G D P	1,286억 달러
인 구	1.51백만 명	1 인 당 GDP	85,161 달러
정 치 체 제	절대왕정	통 화 단 위	Qatar Riyal
대 외 정 책	친서방	환 율(달러당)	3.64

- 카타르는 인구가 약 150만명, 면적이 한반도의 1/20에 불과하나,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중동의 에너지 부국이며, 1인당 GDP는 85,000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의 천연가스 개발정책, 각종 경제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 등에 힘입어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함.
- 대규모 LNG 및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외자도입 증가로 외채잔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오일머니의 지속적인 유입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높은 신인도를 감안할 때 외채상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원유 및 LNG의 생산·수출 증가로 경제 호조 지속

- 석유산업이 GDP의 50%, 수출의 85%, 재정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은 국제유가의 등락과 원유 및 가스의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2003~07년에는 고유가 지속과 원유 및 LNG 생산·수출 증가로 연평균 8.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2008~09년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산 단가 등 장점을 활용하여 9%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0년에 세계 경제 회복과 더불어 LNG 생산량 배증과 고유가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14%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1년에는 정부가 교육, 보건 인프라 부문의 투자를 지속하고 이민 확대에 따른 인구 증가로 내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15.8%의 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제 성장률	10.6	11.7	9.5	14.0	15.8
재정수지/GDP	11.4	12.4	8.8	15.0	16.8
소비자물가상승률	13.8	15.1	-4.9	-2.4	3.3

자료: IMF 및 EIU.

□ 재정수지의 흑자 기조 지속

- 재정수입의 70% 이상을 석유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바, 최근 원유와 가스의 수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는 흑자 기조임.
- 2009/10년(회계연도: 4.1~3.31)에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는 8.8%로 전년 12.4%에 비해 축소되었음.
- 2010/11년에는 고유가와 수출량 증가에 힘입어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42.4%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 흑자는 GDP 대비 15%로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2011/12년에도 국제 유가 강세에 힘입어 재정수지 흑자가 GDP 대비 16.8%로 전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는 2011년에 3.3% 상승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9년~2003년 중 정부의 생필품 가격 통제 및 보조금 지급 등에 힘입어 연평균 2.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 그러나 2004년 이후 대규모 인프라 확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된 결과, 신규 주택의 공급부족에 따른 임대료 급등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크게 상승하여 2008년에는 15.1%의 상승률을 기록함.
-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상품가격 및 임대료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급속히 하락하여 -4.9%를 기록하였고 2010년에도 임대료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는 내수 증가와 지속적인 정부지출 확대, 상품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 의존적 경제구조

- 카타르는 1인당 GDP가 85,000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최고 부국 중의 하나이나, 석유·가스 부문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경제성장이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천연자원 풍부

- 원유 매장량은 2010년 말 기준 259억 배럴로 세계 12위에 해당함.
-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2010년 말 기준 896조 입방피트(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4%)로 러시아와 이란에 이어 세계 3위임.
 -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서, 2009년 기준 1조 8,000억 입방피트의 LNG를 수출하였음. LNG 수출대상국 중 일본, 한국, 인도가 전체의 57%를, 벨기에, 영국, 스페인 등 유럽국가가 33%를 각각 차지하였음.

다. 정책성과

□ LNG 생산 능력 확대

- 정부는 풍부한 천연가스를 활용한 LNG, 콘센데이트,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증대를 목표로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화학 관련 산업 개발에 주력해왔음. 2010년 12월에 최신 생산시설인 트레인 7호기(train seven) 플랜트가 완공되어, 2011년 2월 가동을 개시함에 따라 LNG 생산용량은 2011년 말에 목표인 7,700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 산업구조 다변화 추진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석유산업에 치중된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교육, 인프라,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왔음.

- 2006년에 개최된 제15회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스포츠도시'(Sports City)를 설계하여 관광업 발전에 힘썼으며, 2009년에는 교육 및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카타르 과학기술공원'(Qatar Science & Technology Park)을 설립하는 등 비에너지 부문의 국내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도 주력

- 농지가 국토의 1.6%에 불과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식량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타르 내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도시'(farm city)를 설립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2013년까지 45,000ha의 농토를 개간하고 1,400개의 농장을 신설할 예정임.

□ 2022년 월드컵 개최 준비 활발

- 202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가 열리는 7개 도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300Km의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Doha Metro Project)와 바레인, 신도하국제공항, 사우디아라비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 철도망 확충에 36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또한 카타르가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하도록 정부는 200억~250억 달러를 관광시설 건설에 투자할 예정이며 특히 대규모 국제행사 주최시 숙박시설의 부족 경험을 되살려 호텔의 객실 수를 현재의 총 10,000개에서 84,000개로 확대할 계획임.

3. 대외거래

□ 상품 ·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지속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원유 및 LNG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흑자 기조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9,021	15,880	6,688	21,041	76,376
경 상 수 지 / GDP	11.2	14.3	6.8	16.4	38.3
상 품 수 지	20,912	31,458	25,854	51,103	79,016
수 출	42,020	56,593	48,306	72,040	104,348
수 입	21,108	25,135	22,452	20,937	25,332
외 환 보 유 액	9,345	9,553	17,869	30,112	20,388
총 외 채 잔 액	31,069	57,365	70,795	75,134	82,047
총 외 채 잔 액 / GDP	38.5	51.8	72.0	58.4	41.2
D S R	7.0	7.6	10.9	8.0	5.8

자료: IMF, EIU.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007년에 11.2%, 2008년에 14.3%로 확대되었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 6.8%로 대폭 축소되었음.

○ 2010년에 세계 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으로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16.3%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도 고유가 지속과 LNG 생산·수출의 증가로 흑자규모가 38.3%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잔액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은 낮은 편

○ 총외채잔액은 천연가스의 개발·생산 시설 투자를 위한 외자 도입에 따라 2007년 311억 달러에서 2010년 말에 751억 달러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까지 100억 달러를 밑돌았으나 이후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2010년 말에는 301억 달러로 급속히 늘어났음. 2011년에 외환보유액이 2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카타르가 포르쉐와 폭스바겐, 중국 농업은행(Agricultural Bank of China), 산탄데르 브라질(Santander Brasil),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Iberdrola), 건설회사 호호티프(Hochtief) 등에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기 때문임.
- 외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외환보유액 수준,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낮은 D.S.R(2010년 8%) 수준을 감안할 때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정치적 안정 지속

- 1995년 6월, 무혈 쿠데타로 보수적인 부왕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른 하마드(Hamad) 국왕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왕의 강력한 통치체제 하에서 정치·경제적 개혁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다, 군의 충성심이 강하고 왕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음.
- 2003년 왕비가 각료로 임명되면서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국왕의 사촌인 Jassem bin Jabr al-Thani는 국무총리와 외무장관을 겸하는 등 왕족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사회 불안 요인 미미

-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오일머니의 축적으로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 수준이며, 왕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 반정부 시위의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음.

- 2005년 3월에 수도 도하(Doha)에서 이슬람 단체의 자살 폭탄테러가 일어난 적이 있으나 최근의 치안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3. 국제관계

□ 서방 및 주변국가 등과 원만한 관계 유지

- 카타르는 친서방 정책을 채택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오만, 바레인 등과 전통적인 유대협력 관계를 근간으로 팔레스타인 문제, 중동평화문제 등 주요 국제문제에 있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
- 또한 지역 내 강대국인 이란, 이라크와도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실리적 균형 외교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국왕은 미국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는 동시에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대통령을 9월 초 초빙하는 등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함.

2. 국제시장평가

□ 높은 국제신인도 유지

- 카타르는 균형있는 외교정책과 안정적인 국정운영, 석유산업의 호조 등에 힘입어 OECD, S&P, Moody's로부터 높은 국가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1 (2011. 10.)	B1 (2007. 3.)
OECD	2 (2011. 3.)	2 (2010. 4.)
S&P	AA (2010. 7.)	AA- (2007. 3.)
Moody's	Aa2 (2011. 10.)	Aa2 (2009 .11.)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 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4. 4. 18(북한과는 1993. 1. 11)

□ 주요협정: 경제·기술 및 무역협정(1984), 문화협력협정(1987),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1999)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0년 교역규모는 124억 달러로 수출은 전년 대비 63.9% 감소한 4.7억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42.1% 증가한 11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석유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LNG, 유류제품 등임.

-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제1위 LNG 공급국으로, 2010년 우리나라의 카타르산 LNG 수입량은 760만 톤으로 전체 LNG 수입량의 24%를 차지함.

- 또한 우리나라의 제5위 원유공급국으로 우리나라는 2010년에 전체 원유 수입량의 7.4%에 해당하는 6,400만 배럴을 카타르로부터 수입하였음.

- 우리나라의 카타르 건설공사 수주 규모는 2008년 44억 달러, 2009년 3억 1,000만 달러, 2010년 11억 8,000만 달러로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건설공사 시장 중 하나이며, 2022년 월드컵 개최를 대비해 향후 5년 안에 발주될 프로젝트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건설 업체들의 진출이 기대됨.

□ 한 · 카타르 신재생에너지 개발협력

- 2011년 10월 4일 카타르 도하에서 양국의 에너지 전문가와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 카타르 신재생에너지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2022년 월드컵 경기장에 태양에너지를 활용할 계획 등을 논의함.

- 카타르는 국가비전 2030을 수립하고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동 지역으로 확산되고, 우리 기업들이 향후 카타르 신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표 4> 한 · 카타르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1,901,540	1,309,887	472,666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등
수 입	14,374,568	8,386,492	11,915,450	원유, LNG, 유류제품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1년 6월 말 누계, 총 투자 기준): 45건, 51,387천 달러

V. 종합 의견

- 카타르는 259억 배럴의 원유와 896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자원 자체로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자원 부국임.

- 제반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상승 및 LNG 생산·수출량 증가 등에 힘입어 상품·경상수지의 대규모 흑자 지속, 세계 최상위 수준의 1인당 GDP 등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하마드(Hamad) 국왕의 강력한 통치체제 하에 왕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 정국은 안정적이며, 현 체제를 위협할 만한 특별한 불안요소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관계도 원만함.
- 한편, 대규모 천연가스 개발투자로 인해 외채규모가 큰 편이나,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고 외환보유액 수준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외채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박유정(☎02-3779-5727)

E-mail : yjpark@koreaexim.go.kr